

## 한국판 대칭 및 정리정돈 성향 척도(K-SOAQ)의 표준화 연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sup>1</sup> 의학행동과학연구소,<sup>2</sup>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의공학교실,<sup>3</sup>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sup>4</sup>  
 차경렬<sup>1,2</sup> · 임준석<sup>1</sup> · 박준영<sup>2</sup> · 이수영<sup>1</sup> · 김광욱<sup>3</sup>  
 노대영<sup>1</sup> · 김세주<sup>1,2</sup> · 구민성<sup>4</sup> · 김찬형<sup>1,2</sup>

### A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version of Symmetry, Ordering and Arranging Questionnaire

Kyung Ryeol Cha, MD, MPH<sup>1,2</sup>, Joon Suk Lim, MD<sup>1</sup>, Junyoung Park, BA<sup>2</sup>,  
 Su-young Lee, MD<sup>1</sup>, Kwanguk Kim, MS<sup>3</sup>, Dae Young Rho, MD<sup>1</sup>,  
 Se-Joo Kim, MD<sup>1,2</sup>, Min-Seong Koo, MD<sup>4</sup> and Chan-Hyung Kim, MD, PhD<sup>1,2</sup>

<sup>1</sup>Department of Psychiatry, <sup>2</sup>Institute of Behavioral Science in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sup>3</sup>Department of Biomedical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sup>4</sup>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Kwandong University, Goyang, Korea

**Objectives :** The Symmetry, Ordering and Arranging Questionnaire (SOAQ) has been reported as a valid tool for the assessment of symmetry, ordering and arranging compulsive behaviors of patients with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It was introduced by Radomsky and Rachman in 2004.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reliability, validity and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Korean-version of the SOAQ (K-SOAQ).

**Methods :** Two hundreds twenty eight under-graduate college students were enrolled in this study. They were assessed with K-SOAQ, Obsessive-Compulsive Inventory-Revised (OCI-R),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and Beck Anxiety Inventory (BAI). Statistical analysis was done using calculation of Cronbach's alpha,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Results :**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x, education, and total scores of BDI and BAI. The Cronbach's alpha coefficient of K-SOAQ was high, Cronbach's  $\alpha=0.96$ . There was strong evidence for a one-factor solution, accounting for 60.3% of the variance. Convergent validity was examined through correlations between the SOAQ and the OCI-R ( $r=0.61$ ). Divergent validity was examined through correlations between the SOAQ and two self report measures; BDI ( $r=0.12$ ) and BAI ( $r=0.19$ ).

**Conclusion :** The K-SOAQ showed good reliability and validity for the assessment of severity of compulsive characteristics regarding symmetry, ordering and arranging. The K-SOAQ is a useful instrument for assessing compulsive symptoms related with symmetry, ordering and arranging in Korea.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08;47 (3):263-268)

**KEY WORDS :** Korean-version of Symmetry, Ordering and Arranging Questionnaire (K-SOAQ) · OCD · Reliability · Validity.

## 서 론

강박 장애는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 비 동질적인(heterogeneous) 질환이다.<sup>1)</sup> 이와 관련해서 강박 장애의 분류에

접수일자 : 2007년 8월 17일 / 심사완료 : 2008년 3월 11일

Address for correspondence

Chan-Hyung Kim, M.D., Ph.D.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146-92 Dogok-dong, Gangnam-gu, Seoul 135-720, Korea  
 Tel : +82.2-2019-3340, Fax : +82.2-3462-4304

E-mail : spr88@yumc.yonsei.ac.kr

This paper is an original work that has not been previously published or submitted for publication elsewhere.

관한 많은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주로 점검 또는 오염에 대한 강박 행동을 주제로 한 것이 많았다. 그에 비해 정리 정돈에 대한 강박 행동은 강박 장애 환자에서 흔한 증상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sup>2)</sup> 그 동안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식도 적은 것이 현실이다.

정리 정돈에 대한 강박 행동은 대개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환경에서 대칭(symmetry)에 대한 집착을 포함하는데, 환자들은 이 증상으로 인해 매우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환자들은 흔히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소지품

들이 정확히 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정리하는데 많게는 몇 시간씩 소비하기도 한다. 이러한 강박 행동은 불안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sup>3)</sup>

강박 장애 환자 외에도 대칭 및 정리 정돈의 성향은 매우 흔한 증상이므로 좀 더 정량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Canada 소재 Concordia 대학의 Radomsky와 Rachman<sup>4)</sup>은 2003년에 대칭 및 정리 정돈에 대한 강박적 사고와 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Symmetry, Ordering and Arranging Questionnaire(이하 SOAQ)를 개발하였다. SOAQ는 이론적 개념화 및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고안한 20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리 정돈에 대한 강박행동 및 대칭에 대한 욕구를 각각 0~4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척도는 대칭 및 정리 정돈의 성향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가 필요할 때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칭 및 정리정돈의 성향을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SOAQ의 한국어판(Korean-version of SOAQ, 이하 K-SOAQ)을 개발하고 이를 표준화하는 것이다.

## 대상 및 방법

### 대 상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연구에 동의하지 않거나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불안정한 신체적 질환, 약물 남용, 정신 장애의 최근 병력이 있는 대상자는 제외하였으며 350명 중 234건의 설문지가 수거되었다. 수집된 자료 중 척도의 일부를 작성하지 않은 6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남학생 143명, 여학생 85명, 총 228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 방 법

#### SOAQ의 한글판 제작

한글판 제작에 대한 원저자의 허락을 받고 2004년 Radomsky와 Rachman<sup>4)</sup>이 발표한 논문에 수록된 SOAQ를 번역하였다. 먼저 정신과 전문의 1인과 임상 심리사 1인이 각자 초벌 번역하였고, 이것을 함께 검토, 수정하여 1개의 초벌 번역본을 만들었다. 이 때 신경정신과학 용어집과 대한의학협회 발간 의학용어집을 기준으로 한글 용어를 선택하였다. 초벌 번역본은 다시 영어에 능통한 일반인에 의해 역 번역되었으며 이를 1명의 영문학자와 번

역에 참여한 전문의 1인 및 번역에 참여하지 않은 전문의 1인이 원본과 비교, 감수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어학자의 자문을 구하여 한글판을 완성하였다.

#### 비교 측정 도구

원본의 표준화 연구를 참고하여 대칭 및 정리 정돈의 강박 행동과 관련성이 있는 척도로 OCI-R을 선택하였으며, 관련성이 적은 척도로 BDI 및 BAI를 선택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 Obsessive-Compulsive Inventory-Revised : OCI-R

OCI는 1998년 Foa 등<sup>5)</sup>이 제작한 강박 장애에 관한 자기 보고형 척도이다. 확인, 세척, 강박, 중립화, 정돈, 보관, 의심의 7개 군으로 된 42개의 항목들로 이루어졌으며, 증상의 빈도와 증상과 연관된 불편감을 0~4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증상의 빈도와 증상과 연관된 불편함을 평가한다는 중복성의 문제와 환자들이 그들의 차이를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 때문에 더 쉽고 간결한 형태인 OCI-Revised(OCI-R)<sup>6)</sup>가 개발되었다. OCI-R은 18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점수와 여섯 가지 세부 척도(세척, 확인, 정돈, 강박, 보관, 의심)의 점수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Lim<sup>7)</sup>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 Beck's Depression Inventory : BDI

Beck 등<sup>8)</sup>이 개발한 우울 증상에 대한 자기 보고형 질문지이다. 이 척도는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및 생리적 증상 영역을 포괄하여, 우울증의 심각도를 측정하는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이 척도는 0~3점 척도로, 총점은 0~63점 까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Lee와 Song<sup>9)</sup>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Beck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 Beck's Anxiety Inventory : BAI

Beck 등<sup>10)</sup>이 개발한 불안 증상에 대한 자기 보고형 질문지이다. 이 척도는 불안의 심각도를 측정하는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이 척도는 0~3점 척도로, 총점은 0~63점 이다. 본 연구에서는 Kwon<sup>11)</sup>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 통계 분석

K-SOAQ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검증에는 Cronbach's  $\alpha$  값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K-SOAQ와 OCI-R, BDI, BAI 간의 상관관계를 Pearson 상관 계수로 검증하여 수

렴 타당도(convergent validity) 및 확산 타당도(divergent validity)를 평가하였다. 요인 타당도는 주성분 분석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으로 요인 구조를 살펴보고, 모든 자료는 SPSS(version 11.5)로 분석하였고 유의수준은 0.05 이하로 하였다.

## 결 과

### 사회 인구학적 분포

본 연구의 대상은 대학생 228명이었으며, 이 중 남자는 143명(62.3%), 여자는 85명(37.7%)이었다. 평균 연령은 22.5세였고, 표준 편차는 1.9년이었다. 평균 교육 연수는 15.1년이었으며, 표준 편차는 1.4년이었다(표 1). 대상자들의 BDI 및 BAI 총점은 각각  $5.8 \pm 5.6$ ,  $6.0 \pm 6.6$ 으로 병적인 우울 및 불안을 보이지 않았다.

### 신뢰도

K-SOAQ의 문항 내적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계수는 0.96으로 높았다.

### 타당도

K-SOAQ의 구성 타당도를 확인하고 내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고유값(eigen value)이 1.0 이상인 한 개의 구성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 1개 요인의 설명 변량은 60.32%였다(표 2). 선택된 요인에 대한 각 문항의 요인 적재량(factor loading), 평균 및 표준 편차값은 표 3에 설명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원 연구와 유사했으나 두 번째 문항의 평균 값은 차이를 보였다.

수렴 타당도는 K-SOAQ와 OCI-R 점수의 상관성을 통해 검사되었다( $r=0.61$ ,  $p<0.001$ ). 확산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K-SOAQ와 BDI( $r=0.12$ ,  $p=0.080$ ) 및 BAI( $r=0.19$ ,  $p=0.005$ )의 상관성이 검사되었다(표 4).

Table 1. Participant characteristics

	Total	Male	Female	p*
Number (%)	228 (62.3%)	143 (62.3%)	85 (37.7%)	
Age (M±SD)	22.5± 1.9	22.6± 1.9	22.3± 1.9	0.38
Education (%)	15.1± 1.4	15.1± 1.3	15.1± 1.5	0.94
BDI total score (M±SD)	5.8± 5.6	5.6± 5.8	6.3± 5.4	0.35
BAI total score (M±SD)	6.0± 6.6	5.9± 6.9	6.0± 6.0	0.86
OCI-R total score (M±SD)	16.8±11.6	17.0±11.3	16.4±12.0	0.72
K-SOAQ total score (M±SD)	16.7±15.8	15.7±15.7	18.9±15.9	0.14

\* : Independent t-test between two groups. K-SOAQ : Korean version of the Symmetry, Ordering and Arranging Questionnaire, OCI-R : Obsessive-Compulsive Inventory-Revised, BDI : Beck Depression Inventory, BAI : Beck Anxiety Inventory

## 고 찰

K-SOAQ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원저자의 표준화 연구와 마찬가지로 높아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칭 및 정리정돈의 성향 평가에 쓰일 수 있고 이에 대한 결과 보고에 있어 국제적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K-SOAQ의 문항 내적 신뢰도는 높았으며(Cronbach's  $\alpha=0.96$ ), 수렴 타당도 및 확산 타당도도 높아 대칭 및 정리정돈에 대한 강박 행동의 평가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안정된 도구임을 알 수 있었다. K-SOAQ와 다른 강박 장애에 관한 척도들과의 상관성은 유의하게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강박 장애와의 관련성이 떨어지는 우울 및 불안 척도와 K-SOAQ의 상관성은 낮았다. 이와 같은 수렴 및 확산 타당도 분석의 결과는 K-SOAQ가 질병 특이적임을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 Radomsky와 Rachman<sup>4)</sup>의 연구와 같은 방법으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 연구와 마찬가지로 한 개의 주요 요인이 추출되었고 그 고유값 및 각 문항의 주요 요인에 대한 적재량도 비슷했다.

강박장애 환자들은 똑바로 있지 못한 것들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며 이러한 감정을 없애기 위해 나름대로의 의례적인 행동을 취하게 된다. 대칭 및 정리정돈에 대한 이러한 강박적 행동은 임상 현장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강박 장애의 특징적인 증상 중 하나이다.<sup>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Table 2.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of the K-SOAQ, first 5 components

Component	Initial eigen values		
	Total	% of variance	Cumulative %
1	12.065	60.32	60.32
2	0.969	4.84	65.17
3	0.846	4.23	69.40
4	0.718	3.59	72.99
5	0.573	2.86	75.85

K-SOAQ : Korean version of the Symmetry, Ordering and Arranging Questionnaire

**Table 3.** Factor loadings, item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Items	Factor loading	Item mean	Standard deviation
나는 내 가구들이 항상 똑같은 위치에 있지 않으면 심란해진다.	0.764	0.628	0.886
다른 사람들은 내가 소지품을 정리정돈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고 생각한다.	0.648	0.456	0.843
내게는 내 옷가지들을 특별하고 특정한 방식으로 정돈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0.714	0.659	0.911
나는 내 소지품들이 똑바로 있어야 더 편하다.	0.737	1.425	1.206
나는 내 서류, 영수증, 문서 등을 특정한 규칙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	0.778	0.876	1.125
나는 내 소지품들이 균등하고 고르게 놓여 있는 것을 중요시한다.	0.845	1.000	1.087
누군가 우연히 내 소지품들을 조금이라도 흐트러뜨린다면 나는 혼란스럽고 심란해질 것이다.	0.764	0.770	1.046
나는 내 물건들을 질서정연해 보일 때까지 정리해야 한다.	0.843	0.695	0.984
나는 내 소지품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다고 생각되면 불안하고 불편하다.	0.830	0.677	0.992
나는 물건들을 치울 때 신중하고 정확하게 할 것이다.	0.727	1.018	1.107
내 집의 가구들은 정해진 위치에 정확히 있어야 한다.	0.841	0.650	0.913
나는 내 주변의 사물들이 제 위치에 정돈되어 있어야 차분해지고 편안함을 느낀다.	0.792	1.208	1.130
나는 부엌 선반에 있는 용기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정리해야만 할 것 같다.	0.778	0.867	1.046
나는 내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불안해져서 그것들을 제대로 정리하고야 만다.	0.839	0.615	0.878
나는 물건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균형 있게 배열해야만 할 것 같다.	0.803	0.699	0.956
나는 내 주위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차분해지고 편안함을 느낀다.	0.768	1.336	1.163
나는 내 집이 엉망일 때에도 소지품들은 특정한 규칙에 따라 정돈해 둔다.	0.774	0.690	0.994
내 집의 물건들은 고유한 위치에 정확히 있다.	0.775	0.810	1.026
나는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집중이 안 된다.	0.794	0.695	0.957
나는 일단 빠르게 정리된 물건들은 흐트러뜨리기 싫다.	0.686	1.195	1.180

**Table 4.** Pearson's correlations between K-SOAQ and other questionnaires

	K-SOAQ	OCl-R	BDI	BAI
K-SOAQ	1.000			
OCl-R	0.612*	1.000		
BDI	0.116	0.401*	1.000	
BAI	0.187*	0.431*	0.726*	1.000

\* : p<0.01. K-SOAQ : Korean version of the Symmetry, Ordering and Arranging Questionnaire, OCl-R : Obsessive-Compulsive Inventory-Revised, BDI : Beck Depression Inventory, BAI : Beck Anxiety Inventory

하고 그 동안 이에 관한 연구는 드물었다. 이는 관련 증상을 심도 있게 평가하여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척도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K-SOAQ의 주제인 강박적 대칭 및 정리정돈 성향은 강박 장애뿐 아니라 완벽주의적 성향과 관련이 있다.<sup>12)</sup> 즉,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는 환자들은 드물지 않게 대칭 및 정리정돈에 대한 강박 행동을 보고하곤 한다.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측정하는 척도로는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이하 MPS),<sup>13)</sup> Perfectionism Questionnaire(이하 PQ),<sup>14)</sup> Perfectionism Inventory(이하 PI)<sup>15)</sup> 등이 있다. MPS는 자가보고형식의 척도로서 완벽주의적 성향에 대해 6개의 하부척도를 이용하여 다차원

적인 평가를 하도록 구성되었고, PQ는 병적 완벽주의 성향만을 감별하는 일차원적인 척도이며, PI는 MPS의 하부척도 분류를 8개로 확장시킨 척도이다. 사람들은 흔히 잘 정리된 느낌과 완벽한 것을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대칭 및 정리정돈에 대한 강박 행동의 역할은 그것이 각 개인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강박 장애와 증상, 임상경과, 치료반응 및 정신병리기전 등을 공유하는 강박 스펙트럼 질환 군(obsessive compulsive spectrum disorders)<sup>16)</sup>의 예를 들어 보면, 섭식 장애 환자에 있어서는<sup>17)</sup> 음식을 가지런히 놓아 두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신체추형 장애 환자에게는<sup>18)</sup> 얼굴 등 신체 외형의 대칭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강박성 인격 장애의 경우 정리정돈 성향과 완벽주의적 성향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겠으나<sup>19)</sup> 완벽주의적 성향이 이 환자의 행동과 태도를 설명하는데 더 많은 역할을 한다. 마찬가지로 과도한 책임감은 강박적 대칭 및 정리정돈의 중요한 심리적 요소이다.<sup>20)</sup> 만약 환자가 그의 주변 환경에 대한 조절 능력 및 안정성에 대해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똑바름에 대한 내적, 외적 안정감을 얻기 위한 대칭 및 정리정돈에 대한 강박적 행동이 심하지는 않을 것이다.<sup>21)</sup> 따라서 K-SOAQ는 강박 장애와 같

은 특정 질환의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일 뿐 아니라 대칭 및 정리정돈 성향을 나타내는 다양한 경우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정상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점인데, 보다 넓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임상적 유용성을 알아 보기 위해서는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한데, 대칭 및 정리정돈에 대한 강박행동을 주 증상으로 하는 강박 장애 환자 또는 강박 스펙트럼 질환군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및 이들의 인지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신경인지연구 등이 K-SOAQ를 이용한 의미 있는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 결론

대칭 및 정리 정돈의 성향은 다양한 강박 장애 관련 질환에서 나타나는 매우 흔한 증상이므로 이 성향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도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Radomsky와 Rachman은 대칭 및 정리정돈 성향 척도(SOAQ)를 개발하였고 본 연구는 SOAQ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표준화하였다. 228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판 대칭 및 정리정돈 성향 척도(K-SOAQ) 및 OCI-R, BDI, BAI 등을 적용하였다. Pearson 상관 계수를 이용하여 타당도를 살펴본 결과, K-SOAQ의 타당도는 우수하였다. K-SOAQ의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 )는 높았고, 주성분 분석 결과 일요인이 추출되었다. K-SOAQ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대칭 및 정리정돈 성향을 평가하는 데 있어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였다.

**중심 단어** : 한국판 대칭 및 정리정돈 성향척도 · 강박 장애 · 신뢰도 · 타당도.

## REFERENCES

- Lochner C, Stein DJ. Heterogeneity of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 literature review. *Harv Rev Psychiatr* 2003;11:113-132.
- Rasmussen SA, Eisen JL. The epidemiology and clinical features of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Psychiatr Clin North Am* 1992;15:743-758.
- Rachman S, Hodgson RJ. Obsessions and compulsions. New Jersey: Prentice-Hall;1980.
- Radomsky AS, Rachman S. Symmetry, ordering and arranging compulsive behaviour. *Behav Res Ther* 2004;42:893-913.
- Foa EB, Kozak MJ, Salkovskis PM, Coles ME, Amir N. The validation of a new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scale: the obsessive-compulsive inventory. *Psychol Assess* 1998;10:206-214.
- Foa EB, Huppert JD, Leiberg S, Langner R, Kichic R, Hajcak G, et al. The Obsessive-Compulsive Inventor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hort version. *Psychol Assess* 2002;14:485-496.
- Lim JS. Reliability and validity of Korean version of Obsessive-Compulsive Inventory-Revised in a non-clinical sample [thesis]. Seoul: Yonsei Univ.;2007.
- Beck AT, Beamesderfer A. Assessment of depression: the depression inventory. *Mod Probl Pharmacopsychiatry* 1974;7:151-169.
- Lee YH, Song JY. A study of the reliability and the validity of the BDI, SDS, and MMPI-D scales. *Kor J Clin Psychol* 1991;10:98-113.
- Beck AT, Epstein N, Brown G, Steer RA. An inventory for measuring clinical anxiety: psychometric properties. *J Consult Clin Psychol* 1988;56:893-897.
- Kwon SM, Tian PSO. Differential causal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automatic thoughts in depression. *Cogn Ther Res* 1992;16:309-328.
- Coles ME, Frost RO, Heimberg RG, Rhéaume J. "Not just right experiences": perfectionism, obsessive-compulsive features and general psychopathology. *Behav Res Ther* 2003;41:681-700.
- Frost RO, Marten P, Lahart C, Rosenblate R.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 Ther Res* 1990;14:449-468.
- Rheume J, Freeston MH, Ladouceur R. Functional and dysfunctional perfectionism: construct validity of a new instrument. World Congress of Behavioural and Cognitive Therapies. Copenhagen, Denmark;1995.
- Hill RW, Huelsman TJ, Furr RM, Kibler J, Vicente BB, Kennedy C. A new measure of perfectionism: the Perfectionism Inventory. *J Pers Assess* 2004;82:80-91.
- Ravindran AV. Obsessive-compulsive spectrum disorders. *J Psychiatry Neurosci* 1999;24:10-12.
- Halmi KA, Sunday SR, Klump KL, Strober M, Leckman JF, Fichter M, et al. Obsessions and compulsions in anorexia nervosa subtypes. *Int J Eat Disord* 2003;33:308-319.
- Stein DJ, Carey PD, Warwick J. Beauty and the beast: Psychobiologic and evolutionary perspectives on body dysmorphic disorder. *CNS Spectrums* 2006;11:419-422.
- Halmi KA, Tozzi F, Thornton LM, Crow S, Fichter MM, Kaplan AS, et al. The relation among perfectionism, obsessive-compulsive personality disorder and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in individuals with eating disorders. *Int J Eat Disord* 2005;38:371-374.
- Calamari JE, Cohen RJ, Rector NA, Szacun-Shimizu K, Riemann BC, Norberg MM. Dysfunctional belief-based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subgroups. *Behav Res Ther* 2006;44:1347-1360.
- Myers SG, Wells A. Obsessive-compulsive symptoms: the contribution of metacognitions and responsibility. *J Anxiety Disord* 2005;19:806-817.

□ 부 록 □

대청 및 정리정돈 성향 질문지

각 문장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0 전혀 그렇지 않다    1 약간 그러한 편이다    2 중간이다    3 꽤 그러한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려한 편이다	중간 이다	꽤 그려한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가구들이 항상 똑같은 위치에 있지 않으면 심란해진다.	0	1	2	3	4
2. 다른 사람들은 내가 소지품을 정리정돈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고 생각한다.	0	1	2	3	4
3. 내게는 내 옷가지들을 특별하고 특정한 방식으로 정돈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0	1	2	3	4
4. 나는 내 소지품들이 똑바로 있어야 더 편하다.	0	1	2	3	4
5. 나는 내 서류, 영수증, 문서 등을 특정한 규칙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	0	1	2	3	4
6. 나는 내 소지품들이 균등하고 고르게 놓여 있는 것을 중요시한다.	0	1	2	3	4
7. 누군가 우연히 내 소지품들을 조금이라도 흐트러뜨린다면 나는 혼란스럽고 심란해질 것이다.	0	1	2	3	4
8. 나는 내 물건들을 질서정연해 보일 때까지 정리해야 한다.	0	1	2	3	4
9. 나는 내 소지품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다고 생각되면 불안하고 불편하다.	0	1	2	3	4
10. 나는 물건들을 치울 때 신중하고 정확하게 할 것이다.	0	1	2	3	4
11. 내 집의 가구들은 정해진 위치에 정확히 있어야 한다.	0	1	2	3	4
12. 나는 내 주변의 사물들이 제 위치에 정돈되어 있어야 차별해지고 편안함을 느낀다.	0	1	2	3	4
13. 나는 부엌 선반에 있는 용기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정리해야만 할 것 같다.	0	1	2	3	4
14. 나는 내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불안해져서 그것들을 제대로 정리하고야 만다.	0	1	2	3	4
15. 나는 물건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균형 있게 배열해야만 할 것 같다.	0	1	2	3	4
16. 나는 내 주위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차별해지고 편안함을 느낀다.	0	1	2	3	4
17. 나는 내 집이 엉망일 때에도 소지품들은 특정한 규칙에 따라 정돈해 둔다.	0	1	2	3	4
18. 내 집의 물건들은 고유한 위치에 정확히 있다.	0	1	2	3	4
19. 나는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집중이 안 된다.	0	1	2	3	4
20. 나는 일단 바르게 정리된 물건들은 흐트러뜨리기 싫다.	0	1	2	3	4